

## 2015년 창작뮤지컬 우수작품 제작지원 심사평

- 일시 : 2015. 5. 1(금) ~ 5. 5(화)
-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소극장
- 심의위원 : 구소영, 왕용범, 이지혜, 정수연, 최성신(가나다 순)

2015년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우수작품 제작지원은 대본 공모와 시범공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편의 작품 중 우수작품에 대해 초연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개월간의 작품 수정 보완 과정을 지원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로 시범공연 실연심사를 통해 최종 5편을 우수작품 제작지원에 선정하였다.

대본, 악보, 음원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공연 실연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하였다. 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 작품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을 기준으로 평가 하였으며 모든 작품은 동일한 조건 하에 시범공연을 하였다.

이번 시범공연 작품들의 미덕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다양성의 확장일 것이다. 소재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으며, 음악 장르의 선택 또한 다양해졌다. 이런 현상은 각자의 문법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인력의 저변이 확장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창작뮤지컬의 발전에 꼭 필요한 토양이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작품마다 완성도의 편차는 아직 그 폭이 컸다. 그 진폭 사이에서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고, 다수의 작품을 지원하기보다는 우수작품이라는 취지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이번 심사에서는 이 가운데 짜임새 있는 완결의 가능성을 보인 작품 5편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여타의 작품들에서 가장 크게 아쉬운 점은, 소재의 가능성을 구체적인 작품형상화로 연결 짓지 못했다는 데 있다. 특히 음악이 가미된 무대화의 과정에서 작품의 컨셉이 명확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뮤지컬 창작이 얼마나 복합적인 과정인지를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음악의 가능성이 극작과 연출의 영성함에 묻혀버린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적지 않은 편수의 작품에서 드러난 미숙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극작과 음악 등 장르의 기본적인 문법을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선정된 5편의 작품이 완성도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창작은 언제나 과정이다. 이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창작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창작뮤지컬 우수작품 제작지원 심의위원 일동